

제2주제

도청신도시 및 당진~대전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

당진군 연계발전 전략

조봉운 · 박철희 · 한상욱 · 임준홍
(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)

I. 서론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1) 도청이전 예정지역 확정

- 2006년 2월 12일 도청이전 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, 홍성군 홍북면·예산군 삼교읍 일원으로 결정되었다. 이후 2월 28일 소재지변경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하는 등 도청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.
-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, 부동산 대책 및 주민보상을 위한 준비 등 후속과정을 추진하고 있으며, 2012년에는 도청 및 관련기관의 이전을 시작으로 도시다운 모습을 갖추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다.

2) 당진~대전간 고속도로 건설의 마무리

- 1996년 실시설계 이후 건설해 오던 당진~대전간 고속도로 건설이 2009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. 또한, 서산시 대산읍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수립되어, 완공이후 확충될 계획이다.
- 당진~대전간 고속도로는 국가적 측면에서 기간망으로서 동서축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시·군간 이동거리 및 시간을 대폭 줄임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결집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.

3) 도청신도시 및 당진~대전간 고속도로 건설의 파급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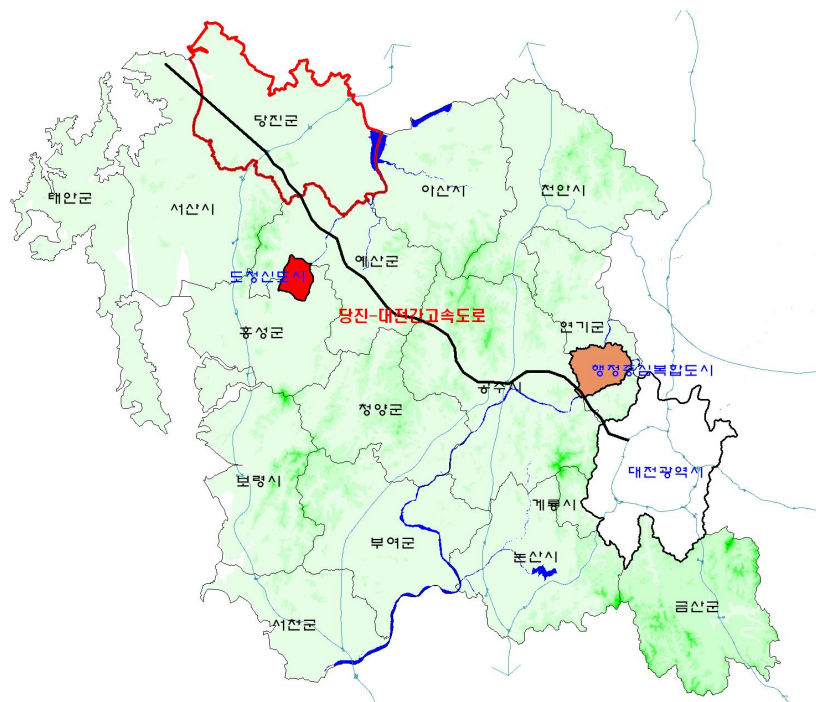
- 도청이전은 단순한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정체성 확립 등 그 의미가 다르다. 충청남도의 행정중심이 되는 지역으

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부여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될 것이다. 따라서,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개발의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미리 대응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를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.

- 또한, 고속도로 건설은 타지역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상호 교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개발수요를 발생시킬 것이다.
- 이에 도청신도시 및 당진~대전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당진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방향 설정을 위해 도청이전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해 보고, 연계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.

2. 연구의 범위 및 내용

- 본 연구는 공간적으로는 당진군을 대상으로 도청이전과 당진~대전간 고속도로와의 영향을 분석하였다.



[그림 1] 당진군 위치 및 주변현황

- 연구의 내용으로는 당진군의 현황을 살펴보고(Ⅱ), 도청신도시와 당진~대전간 고속도로 건설의 내용과 그 영향을 분석(Ⅲ)하였다. 이를 통해 당진군이 대응해야할 과제를 도출하고(Ⅳ), 도청신도시 및 당진~대전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연계발전 전략을 모색하였다(V).
- 연구의 방법은 도청이전과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고찰하여 그 영향 등을 파악하고, 당진군의 통계자료 및 관련계획서를 검토하여 현황과 주요 개발내용을 도출하고, 대응과제 및 연계발전 전략을 제안하였다.

II. 당진군의 현황과 미래상

1. 일반현황¹⁾

1) 위치

- 충청남도 최북단에 위치하며, 동측은 삼교천을 경계로 아산시, 남서측은 서산시, 남측은 예산군과 접하고 있으며, 북측은 서해와 아산만을 경계로 경기도 화성시와 평택시가 위치하고 있다.

2) 자연환경

- 지형은 남고북저형으로 아미산, 이배산, 다불산이 있으며, 그 외는 구릉과 평야지대이다.
- 하천은 국가하천인 삼교천을 중심으로 역천, 당진천, 남원천, 석우천 등 지방2급 하천 22개소와 소하천 74개소가 있으며, 삼교방조제, 석문방조제, 대호방조제 건설로 담수호가 조성되어 농·공용수로 이용되고 있다.



[그림 2] 당진군 자연현황

- 온대성 기후로 하계에는 고온다습하고, 동계에는 저온건조한 전형적인 몬순기후로 북서계절풍이 분다.

1) 당진군(2007)에서 수립하고 있는 2025 당진군도시기본계획(안)과 당진군 홈페이지에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.

- 해안선은 52km, 유인도 4개소(2004년, 193세대, 359명 거주), 무인도 4개소가 있고, 해안지역은 방조제 건설, 간척사업, 산업단지 조성, 항만건설과 준설 등으로 해양환경이 변화하고 있다.

3) 인문 · 사회환경

- 인구는 2003년(117,409명)을 정점으로 연평균 0.3%씩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여 2006년에 124,925명(48,573세대)까지 이르렀다.



[그림 3] 당진군 도로망현황

- 65세 이상의 인구는 19,644명으로 당진군 인구의 15.72%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사회(14%이상)로 구분된다.
- 2004년 현재 당진군 전체면적(664.48km²) 중 도시적 토지이용면적은 54.51km²(8.2%)로 증가하고 있으며, 향후 도시개발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.
- 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(34.84km)와 국도 3개 노선(84km), 지방도 7개 노선(181.7km) 및 군도 17개 노선(163.6km)이 지정되어 있고, 포장구간이 80%이며, 항만은 외항서부두, 송악부두, 고대산단부두, 당진화력부두에서 총 7선석이 운영되고 있다.



[그림 4] 평택·당진항 개발조감도

-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2개소(아산, 석문)와 지방산업단지 2개소(송산, 합덕) 및 농공단지 7개소(당진, 합덕, 면천, 신평, 석문, 송악저문, 한진전문의약)가 지정·운영되고 있다.
- 관광객은 2000년에 284만명에서 2005년에 414만명으로 연평균 7.8%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.



[그림 5] 관광자원분포현황

2. 관련계획

1)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(2006~2020)

(1)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

- 아산만권 : 산·학·연의 집적 및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광역권을 육성하고, 국제적 생산 및 물류기능을 강화하며, 항만 등 국제교류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세계화 전진기지로 육성
- 자동차부품 전략산업 : 권역별 전략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하고, 광역적 산업간 연계를 통해 국제적 규모의 경쟁력을 갖는 클러스터로 발전 유도
- 문화관광특정지역 : 서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추진으로 서해안 지역의 관광인프라 확충 및 국제적 생태·해안관광지대로 조성하고, 내포지역 소문화권을 중심으로 독특한 지역의 역사와 산업특성을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확충

(2)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

- 도로, 철도, 항만 등 동북아를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 및 국내 지역과 인접국가 지역들과의 교류, 협력사업 촉진

(3)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

- 국제화물은 해운을 기조로 유지하고, 권역거점항만은 중단거리 교역화물을 담당하는 등 동북아 관문 역할을 부여하며, 수송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만, 산업단지, 물류거점시설, 산업철도 등 교통수단간의 연계 등 광역종합교통망 구축
 - 도로 : 서해안, 당진(대산)~대전간, 당진~천안간 고속도로
 - 철도 : 서해산업선(안흥~인주), 서해선(야목~예산)
 - 항만 : 평택·당진항

(4)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

- 도시 기초생활환경시설의 정비, 역사문화공간의 발굴 및 구성, 자연과 어우러지며, 대중교통 위주의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

(5)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

- 오염관리총량제,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정비, 생태네트워크 구축, 방재대책 등 환경친화적인 자원 관리

(6)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

- 국토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체계 정립 등 지방분권 강화

(7) 충청권 발전방향

- 국가행정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 선도지역, 첨단산업과 전통농축산업의 상생발전지역, 개성과 전통을 살린 문화·관광 창출지역으로 개발
-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서해안을 잇는 교통망 확충, 북부산업지대 활성화 및 내포문화권 형성과 특화관광자원 개발

2)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(안)(2006~2020)

(1) 살기 좋은 도시·농촌 정주기반 형성

- 행정중심복합도시, 신도청도시, 기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연계된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, 고속도로IC 연접부 등 지역 특성과 자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거점 조성, 역사문화연계사업,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, 오픈스페이스 확보, 주민참여 활성화 등 충남형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추진
- 농촌복지형 주거공간,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개발 등 테마마을 조성과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, 지역특성 자원화를 통한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

(2)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산업 육성

- 농산업클러스터 구축, 충남쌀 명품 브랜드 육성, 산림의 휴양·관광자원화,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·유통 지원, 갯벌과 바다목장 등을 활용한 고부가 수산업 육성
- 전자·정보기기산업 및 자동차·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환경산업, 나노산업 등 미래지향적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연구개발중심의 집적지구 조성

(3) 특색있는 지역문화와 매력있는 관광 진흥

- 내포문화권의 역사·문화환경 조성,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주민 밀착형 문화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
- 해양자원과 내포문화권을 연계한 국제교류지대 형성을 위해 서해안 문화관광벨트 개발, 다양한 관광마케팅 추진 및 관광상품 개발

(4) 신속하고 편리한 인프라 구축

- 도내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, 신도청중심의 고속화도로망 구축, 지역의 자연관광자원 활용과 산업지원을 위한 서해안관광산업도로와 관광도로 조성
- 산업 및 관광을 지원하는 철도망 구축과 환황해권 교역을 위한 첨단산업 항만단지 기능의 항만 개발, 내륙·해양·항공물류기지의 입체적 연계로 Tri-port 기능 확충
- 유비쿼터스 기반의 도시·농촌 등에 U-산업, U-City 사업 추진

(5) 더불어 누리는 생활·복지환경 조성

- 노후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 및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강화
- 다양한 사회계층별 복지시설 확충,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보건 의료시설 확충 등 복지체계 확립

(7) 깨끗하고 안전한 푸른충남 구현

- 산-하천-해안을 잇는 지역생태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야생동식물의 생물다양성 증진 및 대기질, 수질, 토양오염에 대비한 오염관리체계 구축
- 폐기물 감량, 재활용 등 폐기물 관리기반 확충 및 방재체계와 종합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전충남 조성

(8) 동북아 물류 및 임해형 신산업 중심도시 당진군의 발전방향

- 역동적인 수출지향적 임해신산업지대를 조성하여, 환황해경제권을 주도하는 물류·유통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, 지속가능한 체험형 휴양 및 여가의 중심지로 개발

3. 당진군의 미래상²⁾

1) 미래상과 계획목표

- 당진군의 미래상은 「인간과 자연, 풍요와 행복이 어우러진 신산업 향만도시」이며,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임해형 산업거점도시, 정보·물류거점도시, 환경친화적 에코시티(ECO-city), 첨단근교농업도시, 관광·휴양도시를 계획목표로 하고 있다.
- 임해형 산업거점도시를 위해 기존 산업단지 정비, 산업단지 집적화, 복합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, 첨단지식산업 육성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.
- 정보·물류거점도시를 위해 향만, 철도, 도로 등 인프라 구축과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물류단지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.
- 환경친화적인 에코시티를 위해 자연환경과 조화된 도시기반시설

2) 당진군(2007), 2025년 당진군도시기본계획(안)

을 확충하고, 환경친화적 정주환경을 조성하며, 자연과 조화되는 공원 및 녹지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.

- 첨단근교농업도시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력 육성을 지원하고, 10대 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며, 정보화 시범마을 등 유비쿼터스형 농업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.

2) 주요 도시지표

- 계획인구 : 2004년 11만9천명에서 2025년 33만5천명
- 경제활동인구 : 2004년 6만3천명에서 2025년 19만1천명
 - 취업인구는 2004년 4만8천명에서 2025년 18만3천명
- 1인당 총소득 : 2005년 1만7천달러에서 2025년 3만4천달러
- 공원면적 : 2004년 1.7km²에서 2025년 4.9km²

<표 1> 주요 도시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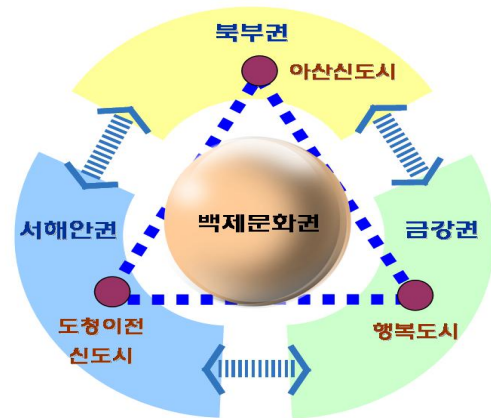
구 분	2010년	2015년	2020년	2025년
계획인구(인)	180,000	250,000	288,000	335,000
경제활동인구(인)	98,690	141,470	165,050	191,840
1인당 총소득(천달러)	22	26	30	34
취업인구(인)	84,400	122,800	152,600	182,700
도로개설률(%)	85	90	95	100
공원(천 m ²)	3,932	4,199	4,514	4,854

자료 : 2025년 당진군기본계획(안), 2007.

Ⅲ. 도청신도시 및 고속도로 건설

1. 도청신도시 건설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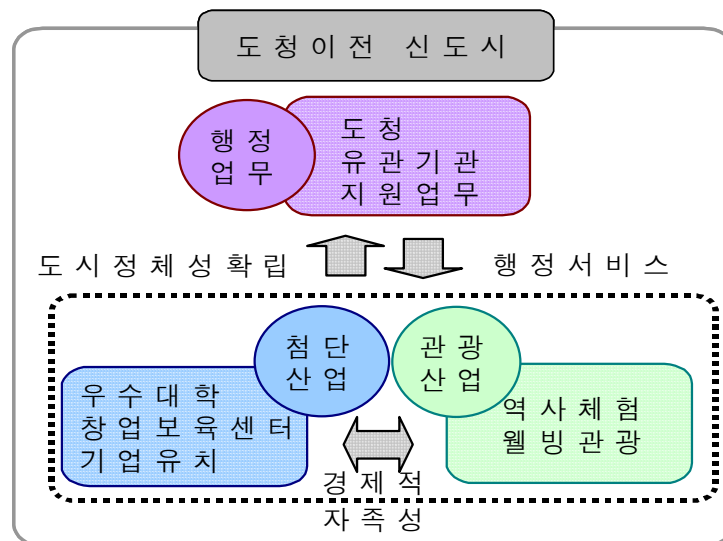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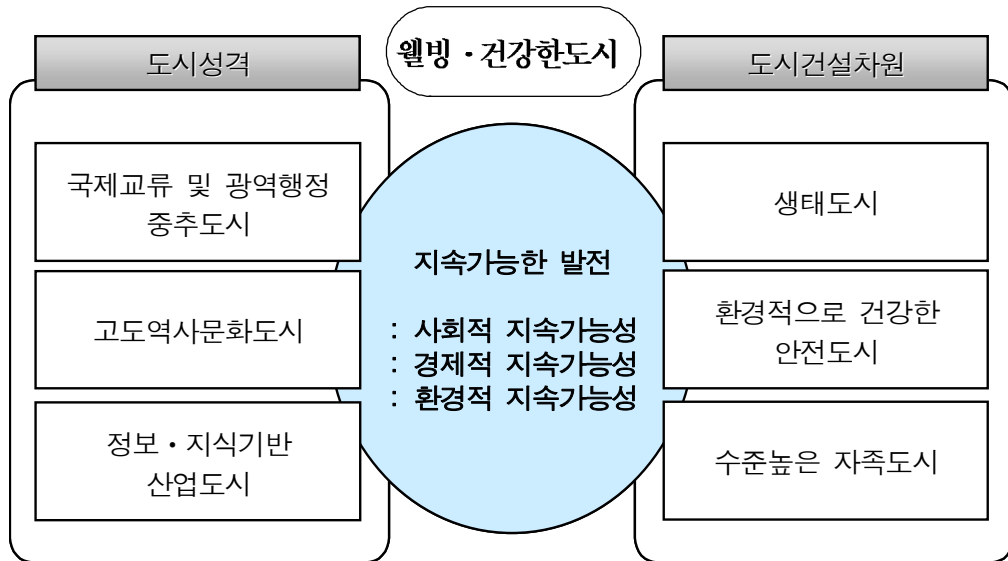
- 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「도청이전 신도시~아산신도시~행정중심복합도시」와의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시간 협력을 위한 도로망·철도망 연계개발과 도청이전 신도시 컨셉 및 인구·도시규모·구역계 설정·신청사 위치 등 도청이전 신도시의 조 [그림 7] 도시간 협력 발전방향성방안과 새로운 충남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.
- 도청이전과 관련 충남도 발전에 대해서는 3개의 중심도시(도청이전 신도시, 아산신도시, 행정중심복합도시)와 주변권역(금강권, 북부권, 서해안권)별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도시간 협력을 통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.



1) 도청신도시의 컨셉

- 도청이전 신도시 컨셉으로는 국제교류 및 광역행정중추도시, 고도역사·문화도시 등의 도시성격을 띄면서, 생태도시건설 및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건설 방향을 제시하였다.
- 주요 유치기능에는 IT, BT관련 산업기반 기능, 특성화대학 및 산학협동단지 조성, 교육연구기능, 임상병동, 특성화된 종합병원의 복지 의료 기능, 차별화된 주거기능, 온천문화+스포츠 특화 등의 지역특화기능 등을 유치 방안으로 설정하고 있다.

- 도청이전 신도시 인구 규모는 15만명으로 도청 및 유관기관 유입인구, 관련업종 부문 유입인구, 개발 파급효과에 따른 유입인구, 특화기능 설치 발생인구, 3차 서비스산업 인구 등으로 12만명은 신도시내에, 3만명은 그 주변지역에 유치하는 구상안을 제시하였다.



자료 : 충청남도(2007), 도청이전신도시 구역지정을 위한 기본구상(안)

[그림 8] 도청이전 신도시 컨셉

2) 도청신도시 경계구역과 생활권 설정

- 신도시 경계구역 설정은 300만평 규모로 동측경계는 하천수계·도로 및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우량농지가 최소화 되도록 설정하였으며, 서측 경계는 자연 훼손정도를 감안하여 일정표고 이하를 기준으로 기개발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. 또한 남측 및 북측경계는 하천·도로 및 지적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. 홍성과 예산의 편입면적은 당초 예정지 지정때의 면적비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63%(189백만평)와 37%(111만평)가 되었다.
- 생활권 설정에 있어서는 도청이전지와 중심상업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홍성, 예산에 각각 중심생활권을 배분하였고, 남북방향의 개발축에 인접한 신도시 중심에 행정구역별 주생활권으로 설정하였다. 또한 배후 생활권은 홍성·예산군의 부생활권으로, 산업생활권은 첨단산업용지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.
- 도청 신청사 위치는 현지지형 여건을 고려하여 도청입지의 규모와 위치를 선정하였으며, 상징성, 중심성, 접근성, 개발시기성, 생태성, 주민화합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었다. 현 계획 대상지는 홍성·예산의 경계에 입지하여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으며 공공시설을 연계한 복합적 개발계획 수립이 용이하여 가장 좋은 대안으로 분석되었다.

3) 도청신도시 개발구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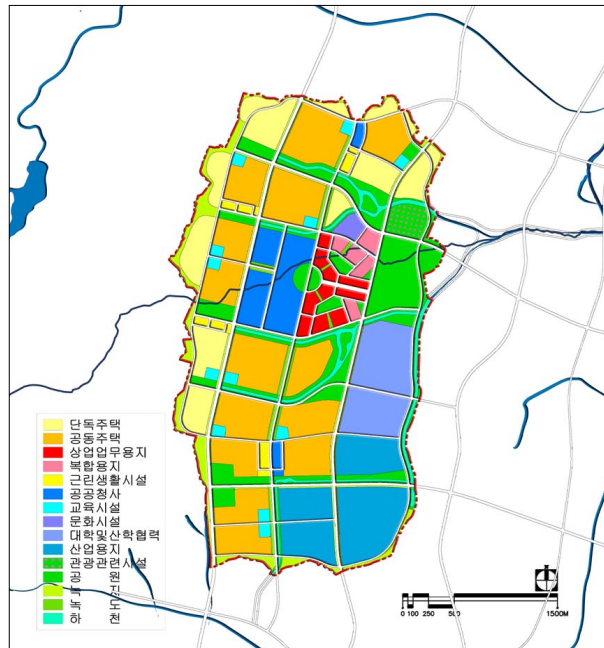
- 토지이용 구상안으로는 자연순응형으로 토지이용이 가능하고 균형적인 기능배치가 용이한 격자형 가로망을 채택하였으며, 주택건설용지 32.4%, 지식기반산업용지 14.8%, 공공시설용지 40.2%, 상업용지 등을 12.6%로 계획 하였다.
- 또한 도시의 접근체계는 남북방향 3개, 동서방향 2개의 간선도로를 계획하고 각 생활권별 보조간선도로를 계획하였으며, 쾌적한 도시공간과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보행자 전용도

로 및 자전거 도로를 주요도로변과 녹지공간에 적절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의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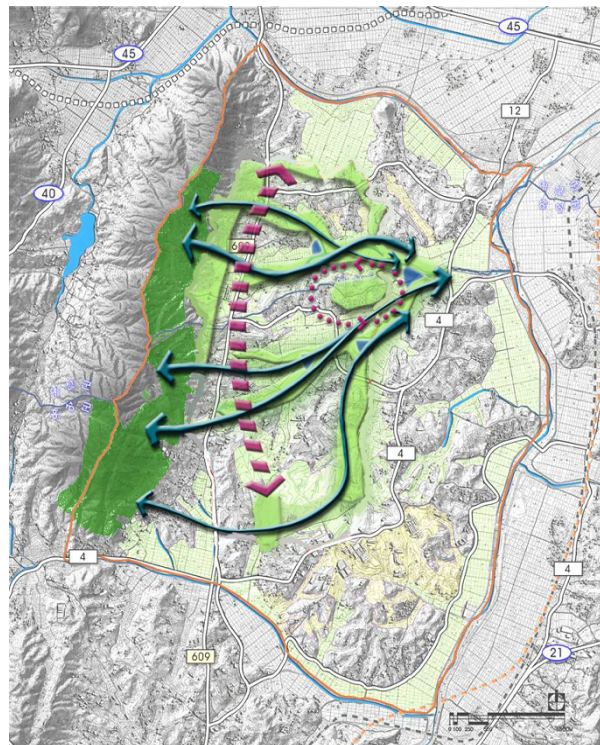
- 도시녹지체계에는 용봉산 자연휴양림의 줄기를 따라 내려오는 자연녹지 체계와 방사형으로 합수되는 부지내 수계의 연결을 통하여 결합된 녹지체계를 구축하였으며, Eco-bridge 개념을 도입한 생태녹지 체계 및 도시 경관연속성을 유지하는 도시공원, 근린공원, 녹도,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시설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였다.

- 개발방식에는 총 300만평의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단계적 개발방식을 선택하였으며 1단계는 수용 및 사용방식(공영개발방식)으로 200만평을 개발하고 이중 공공시설용지 및 편익시설을 위한 1-1단계 140만평, 산학협동화단지 등 1-2단계는 60만평이다.

2단계 주거 및 산업용지 100만평은 혼용방식 등의 추진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일괄매수, 단계적 개발을 추천하였다.



[그림 9] 토지이용구상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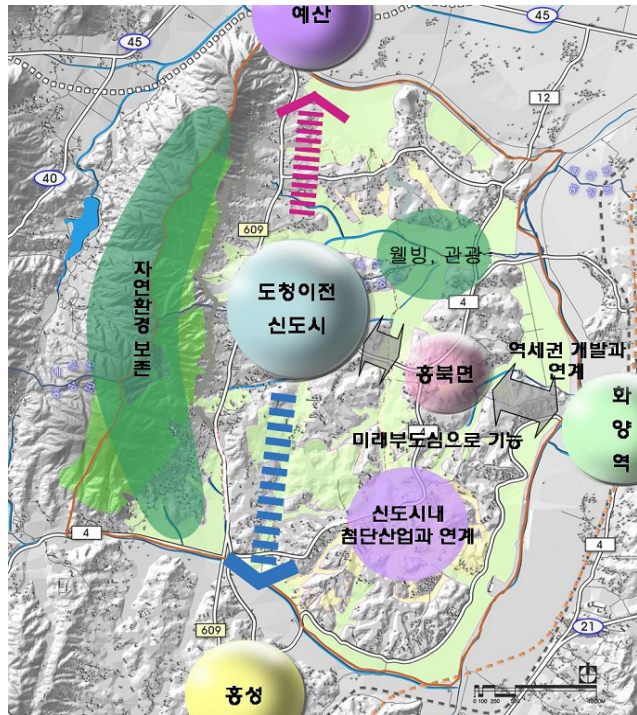


[그림 10] 녹지축 구상(안)

- 도청이전 사업의 사업성분석에는 300만평을 동시에 개발할 경우 매년 할인율 5%, 상업용지 판매가격을 조성원가의 270%로 가정할 때 525억원 가량의 순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였다. 또한, 청사건축비를 제외한 조성사업비는 1조 7,84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였다.

4) 도청신도시 도입기능 및 이전기관

- 도청이전 신도시 장기 비전플랜으로는 향후 도시발전 정도에 따라 확장 가능성을 열어 남북축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, 용봉산 자연녹지 및 기존 수계지역은 개발을 억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충남도의 지역행정,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, 아산탕정신도시, 태안기업도시를 연결 충남도내 지역산업의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허브역할 수행을 골자로 계획하였다.



[그림 11] 도입기능 구상(안)

- 유관기관 및 단체 이전에 관하여 의향조사를 대전소재 도청산하의 직속기관과 공기업, 국가기관, 유관기관 등 총 215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, 이중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유관기관은 22개에 2,490명이며, 이전 희망단체는 58개에 481명으로 조사되었다.

- 이전기관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법인세, 부가가치세 감면, 이전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, 부동산 임대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고, 이전기관 직원에 대해 주택구입 우선권 부여, 주택자금 지원 등 주택문제 해결과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 및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, 경제적 지원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.

2. 도청신도시 건설의 영향

1) 도청신도시와 당진군의 비교

(1) 도시성격의 중복성

- 도청신도시는 국제교류, 광역행정을 담당하는 통합형 행정도시, 대학, 테크노파크, 지식기반산업단지를 통해 첨단과학도시, 역사문화자원, 관광레저자원, 의료복지시설을 통한 고품격 건강복지도시를 기본구도로 삼고 있다.
- 당진군에서도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하고, 환경친화적인 에코시티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충되는 도시성격으로 당진군의 이미지가 약화될 수 있다.

(2) 도시개발사업의 중복성

- 도청신도시는 15만명(개발지역 12만명, 주변지역 3만명)의 도시로 개발되는데, 인접한 당진군에서도 산업단지,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도시의 성장을 꾀하고 있어, 시기적으로 중복되어 있다.

(3) 연구 및 교육기능의 보완

- 도청신도시에 종합대학/대학원,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연구 및 교육기능을 갖춘 도시로 계획하고 있는데, 산업단지 입지가 많은 당진군으로는 연구 및 전문인력 개발 측면에서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.

- 특히, 도청은 도전반에 대한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와 연계된 연구 및 교육기능이 도입되면,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이 보완되어 산업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.

(4) 종합병원 등 의료·복지기능의 보완

- 농촌지역으로 부족하던 의료·복지기능이 주변도시인 도청신도에 도입되면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지역주민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.
- 또한, 종합병원 및 복지시설을 이용한 고령인구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, 은퇴자 및 귀농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원주택단지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개발이 증가할 수 있으며, 전원으로 기존 대도시의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.

2) 공간적 측면의 영향

(1) 주변지역과의 연계 강화

- 도청신도시는 행정중심도시로서 시·군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연결 교통망 확충 등 SOC투자가 이루어져 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에 도움을 줄 것이다.

(2) 당진읍의 중심성 약화

- 당진군의 총 인구가 12만명으로 도청신도시 계획인구와 같지만, 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성은 도청신도시가 더욱 강할 것이다. 따라서, 인접하고 있는 읍·면의 생활패턴이 당진읍이 아닌 도청신도시로 중심성이 이동할 수 있다.
- 도청신도시의 주거환경 및 도시서비스의 차이로 인구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. 이러한 현상은 신도시개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홍성, 예산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그 외곽의 도시(당진, 서산, 태안, 보령, 청양 등)에서의 유입이 이루어져 중심성이 약화될 수 있다.

(2) 당진군 공간구조의 왜곡

- 도청신도시와 주변지역에 대한 인프라구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진군에 입지하려고 했던 산업시설이 도청신도시 개발시점까지 입지를 결정하지 않고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. 이러한 산업입지 지연은 당진군의 성장지연으로 이어질 것이다.
-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가 당진군에 입지한다고 해도, 도청신도시에 거주하고 출퇴근하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. 이러한 경우 당진군의 도시개발사업, 산업단지 배후주거지 조성사업 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.

(3) 취업 등 일자리 제공에 따른 교류 증대

- 도청신도시개발과 이후 도시서비스제공 등을 위해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 주변지역인 당진군 주민에게 고용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. 이 경우는 도청신도시와 당진군간의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망의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.

(4) 도청신도시와 당진군 연결 교통축으로 난개발 발생

- 당진읍은 기성시가지로 지가가 높고, 도청신도시는 신규개발로 개발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데 비해 그 중간지역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으며, 교통망주변은 접근성이 양호하여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.
- 특히, 당진읍과 도청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면천면과 합덕읍의 경우는 기성시가지 주변으로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이 우려된다.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고, 그 밖의 지역은 강력한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.

3) 지역경제적 측면의 영향

(1) 당진군 농경지의 지가 상승

- 도청신도시의 농경지를 소유한 농가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주변 농경지에 대한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.

(2) 농업형태의 변화

- 도청신도시 건설에 따라 쌀농사 중심의 농업에서 도시근교농업 형태로 변화가 예상된다. 특히,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어 재배방식의 변화 등 농업전반에 걸쳐 변화가 진행될 것이다.

(3) 제조업의 집적 및 클러스터 형성

- 도청신도시에 첨단산업기능 도입을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연계발전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게 될 것이다.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발전여건이 향상되고, 이러한 여건변화는 수도권 등에서의 산업이동을 유발하게 되어 결국 산업집적지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. 특히, 북부산업지대와 근접하여 있어 더욱 빠르게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이러한 변화는 지역산업의 집적 및 연구기능과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어 지역산업발전을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.

(4) 서비스업의 다양화와 재래시장의 쇠퇴

- 도청신도시 인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산업이 성장할 것이며, 분야도 다양화할 것이다. 이러한 성장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족적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.

- 반면, 주변 재래시장은 그 구조와 유통형태에 있어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버티지 못하고 급속히 쇠퇴할 것이다.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재래시장 스스로가 유통체계 및 환경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.

(5) 관광산업의 성장

- 도청신도시에 유입되는 15만명의 인구는 다양한 문화활동 및 여가활동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. 특히, 주변에 해안과 산림 및 다양한 역사문화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관광자원을 찾는 발길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.
-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재 및 문화관련 시설과 관광지 및 위락시설 등의 정비와 확충을 통해 수요에 대응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.

4) 기타 파급효과

(1) 이주민과 원주민과의 문화적 마찰

- 농촌을 배후지역으로 하고 있는 도청신도시 주변 지역민과 대전의 대도시에서 생활하던 이주민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지역내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.
- 특히, 상대적 비교를 통해 원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등과 이주민의 지역문화에 대한 적응이 곤란한 경우 그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.

(2) 지역내의 불균형

- 인구의 이동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및 활동이 도청신도시에 집중함으로써 주변지역과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. 이것은 지역내의 또다른 갈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걸림돌이 되거나 넘비현상과 같은 지역이기주의적 경향으로 표출되어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.

3. 당진~대전간 고속도로 건설 개요

1) 사업배경 및 개요

- 당진~대전간 고속도로는 전국간선도로망(7×9) 중 동서6축의 일부구간으로서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며, 대전과 충청서북부지역을 연결하여, 서산, 당진, 아산지역의 대단위 공단과 평택·당진항의 물동량을 중부권으로 직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.
- 사업규모는 연장이 91.58km, 4차로로 건설되며, 2009년 완료될 계획이다. 또한, 서산시 대산지방산업단지까지 연장(25km)하여 개발하는 계획에 수립되어 있다.

2) 연결 고속도로 현황

- 본 노선의 시점부인 신성JCT는 기존의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며, 종점부인 남당진JCT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된다. 천안~논산간 고속도로와 서공주JCT에서 교차하고, 현재 건설중인 서천~공주간 고속도로와 우성 JCT에서 연결되는 계획이다.

3) 교통량 예측과 타당성 분석 결과

- 김동욱·강동진(1999)은 '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연구'에서 2021년 47,172대/일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고, 총사업비는 2조1,030억원(km당 229.6억원), 운영비용은 1조815억원으로 분석하였으며, 민자사업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.

4. 당진~대전간 고속도로 건설의 영향

1) 고속도로 건설이 주변부 개발에 미치는 영향³⁾

(1) 공간구조와 토지이용 변화

- 지역간 통행시간 단축 등 공간적 격차가 단축되어 대도시에 집중되었던 주거, 산업 및 여가활동 기능의 일부가 지방으로 분산되고 지방도시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광역적 지원기능이 강화되는 등 공간구조의 변화가 발생한다.
- 토지이용 변화는 고속도로IC를 중심으로 나타나고, 국지적으로 주변토지의 용도지역변경을 초래하는데, 주로 녹지지역에서 주거, 공업, 상업지역 순으로 변경된다.

(2) 토지가치의 상승

- 고속도로의 직·간접영향권의 연평균 지가변화율은 30%이상 증가하는데, 특히, 개통 2년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다.
- 따라서, 양호한 개발후보지를 계획단계에서 미리 수용할 경우 용지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.

(3) 고속도로 연결부의 산업과 지역경제에 기여

- 고속도로 개통은 주변지역에 접근성 향상과 산업활동 효율화를 수반하게 되어 민간부문의 소득과 지자체의 세수규모 및 산업입지 증가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기여한다.
- 고속도로에서 10km 안에 전국 공업단지(국가공단+지방공단)의 60%이상이 입지하고 있다. 종업원수, 생산액, 수출액 등은 공업단지 전체의 80%이상을 차지하고, 사업체수 증가율도 전국평균

3) 유재영(1995), 고속도로 IC 주변부 개발 및 관리방안 연구, 국토개발연구원.
문동주의(1995), 고속도로 연결부의 유통단지 개발방안 연구, 국토개발연구원.

보다 높게 나타난다. 고속도로IC에서 30분 이내 도시의 성장이 30분 이상 지역의 도시보다 높게 나타난다.

(4) 화물과 상품유통 기능의 증대

- 고속도로는 철도 및 일반도로보다 상품과 화물수송 및 수출입컨테이너의 수송에 있어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.
- 신속성, 운송수단의 대형화와 전용화, 주행중 적성과 안전성, 수송상품의 파손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.
- 금속가공형, 지방자원형, 기간자원형(제지, 화학, 석유 등), 잡화형(의복, 섬유, 가구, 출판 등) 공업순으로 입지한다.

(5) 여가활동 관련산업의 활성화

- 고속도로는 전국관광지와 도시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관광자원의 개발을 촉진한다. 또한, 다양한 계층이 개별적인 통행목적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여가활동인구를 증가시킨다.
- 고속도로를 통해 시·군내 관광지를 이용하는 인구가 50%이상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.

(6) 지자체의 세수확대

-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접근성이 향상되어 2차산업 및 3차산업 입지에 영향을 미친다. 즉, 인구유입, 공장의 증설로 출하액, 판매액 증가는 지방세 증대를 가져온다.

2) 당진군에 미치는 영향

(1) IC 주변의 개발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변화

- 당진~대전간 고속도로 중 당진군에 설치되는 IC는 대호IC, 정미IC, 남당진IC로 이들 주변지역에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개발과 함께 개별적인 공장 입지 등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

를 통해 도시공간구조가 서해안고속도로 개발축, 해안개발축과 더불어 당진~대전간 고속도로 개발축이 형성될 것이다.

(2) 당진군 지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투기 및 개발사업 차질

-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주변지역의 개발붐이 일면, 지가가 상승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부동산투기가 발생한다. 이러한 지가상승과 투기붐은 주민을 위한 개발사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, 토지이용의 변화를 가져와 난개발이 된다.
- 특히, 부동산투기는 소득격차를 발생시켜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어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하고, 내집마련 등이 곤란하여 지역을 떠나거나, 개발이익을 얻어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인구유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.

(3) 수도권 및 대전권 산업의 이전 가능

- 수도권 규제로 인해 인접한 당진군으로 산업이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 여기에 당진~대전간 고속도로 건설은 지가가 높은 대전권의 산업이전을 촉발할 수도 있다. 특히, 항만이 위치하고 있고, 수도권과 인접한 장점을 갖추고 있어 산업입지 이전이 가능할 것이다.

(4) 교통량의 증가

- 산업의 입지 및 당진~대전간 고속도로 영향권에 위치한 대전, 행정중심복합도시, 도청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는 교통량의 증가로 이어져 지역내의 도로의 정체를 유발하는 등 교통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.
- 화물교통량은 도로의 소음, 진동 및 미세먼지 등을 유발하고, 관광객의 유입은 각종 쓰레기 발생 및 자동차 이용에 따른 대기질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.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.

(5) 관광수익 및 세수 증대

- 관광객이 많이 찾게 되면 그만큼 관광수익이 발생하고, 이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, 지역고용창출 및 지역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이에 따른 세수의 증대로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되어 지역성장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.
- 그러나, 이러한 관광지 개발로 인해 자연경관 및 환경의 훼손은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위한 가이드를 만들어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.

(6) 인구유출의 위험

- 고속도로는 시공간의 단축을 가져와 이동에 따른 비용을 절감시키므로 당진~대전간 고속도로 주변의 양호한 신도시로 인구의 유출이 예상된다. 가까이는 도청신도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, 대전광역시 등과의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.
- 특히, 2시간 30분이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 이내로 단축되어 출퇴근, 소비시장 근접형 산업 및 대덕 R&D특구와 연관된 산업 등은 당진군에 입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타지역에 입지할 가능성이 있다.

IV. 당진군의 대응과제

1. SWOT분석

1) 강점

- 무역항(평택·당진항)이 있으며, 수도권 수요 등 지속적인 확충을 추진하고, 국가·지방산업단지 등 산업기반이 갖추어져 있으며, 산업입지가 증가하고 있다.
- 해안, 하천, 호소, 농경지, 구릉지 및 산림의 자연자원과 내포문화 등 역사문화자원을 갖추고 있으며, 수도권과 인접하여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.
- 도시의 산업입지 및 인구유입에 따른 배후단지 등 신시가지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.

2) 약점

- 산업지원을 위한 연구·인력양성 부문이 미약하고, 주변도시의 산업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, 지가상승 등 입지여건이 악화되고 있다.
-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정비와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, 타지역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.
- 산업단지 주변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기존시가지의 침체가 우려되고, 지역간 연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.

3) 기회요인

- 충청권의 신도시개발 등으로 배후소비지역이 증가하는 등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,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어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다.
- 접근성향상과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5일근무제의 정착 및 관광산업이 체험 및 체류형으로 변화하고 있어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다.
-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신시가지가 조성됨으로써 도시의 활력이 증가하고, 신규개발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다.

4) 위협요인

- 중국의 성장과 항만개발로 산업유출 및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어 현재는 수요가 있지만 향후 중국과의 경쟁관계로 산업유출이 우려되고, 주변도시의 산업관련 특구개발 등 산업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.
- 산업입지와 교통망 확충 등은 자연환경의 훼손은 관광자원인 자연파괴라는 점에서 우려되고, 주변도시의 온천관광, 기업도시,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 등으로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략할 수 있다.
-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따라 접근성이 향상되면, 주변의 대도시 및 신도시와의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교육 및 주거환경 등 도시서비스의 질적 비교로 출퇴근인구 증가 등 인구유출이 우려된다.

2. 대응과제 도출

1) 접근성 향상을 기회로 선도적 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

- 고속도로 및 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기회로 삼아 입지잠재력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교통수단간 연계 및 환승체계를 정비 및 확충하고,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유치 및 지원하여야 한다.
- 단순한 산업단지 집적이 아닌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산업간 클러스터 구축 및 기술지원을 위한 R&D기능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.

2) 자연자원 및 역사·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시설 확충

- 최근 성장하고 있는 산업집적지대는 주변에 문화활동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 등 관광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. 당진군은 해양과 역사·문화자원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.

3)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서비스 기능 강화

- 산업만 집적된다면 인구유입에 한계가 있고,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. 주변지역과 비교하여 거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을 확충하고, 고품질의 도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,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.

V. 연계 발전 전략

1. 산업기술지원을 위한 R&D단지 조성

1) 필요성

- 수도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산업이 유입되고 있어, 이들 산업간 연계 및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연구 및 개발기능이 필요하다.

2) 입지여건

- 국제적 교류에 필요한 항만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, 이와 연계된 고속도로, 철도 등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어 입지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. 이를 바탕으로 항만 주변 및 고속도로 주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,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.
- 교통망 확충에 따라 지역의 대학과 도청신도시의 연구기능,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연구기능 및 대전R&D특구 등과 연계할 수 있어 기술지원의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다.

3) 추진방향

- 당진군에 입지하고 있는 산업을 분류하여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생산·판매 등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주변 연구기능 및 대학을 통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.
- 주요 산업집적지역, 교통여건이 우수한 고속도로 IC 주변, 철도인접지역 등을 고려하여 산업기술지원 R&D 단지를 조성하고, 관련 연구인력 및 연구소를 유치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평가, 기술지원,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.

2. 고속도로 IC 주변지역의 물류·산업복합단지 조성

1) 필요성

- 고속도로의 건설에 따라 고속도로IC 주변부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지만 여건상 시가지가 조성되기에는 부적합하다. 이러한 접근성을 활용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물류기능과 산업기능이 복합된 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.

2) 입지여건

- 당진군은 서해안고속도로, 당진-대전간 고속도로, 당진-천안간 고속도로 등이 건설 및 추진되고 있어 많은 IC가 조성된다.
- 고속도로 IC는 당진군의 주요 지역을 경유하고 있어, 이들지역과 연계하여 물류·산업이 복합된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수송비를 최소화하고, 시가지까지 화물차 등이 진입하지 않으므로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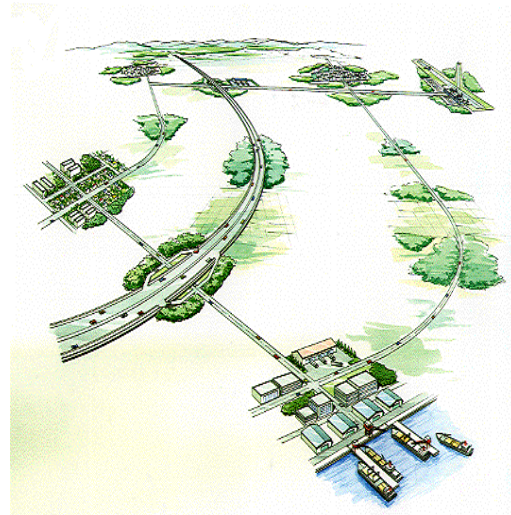
3) 추진방향

-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선정시 고속도로IC 주변지역에 대규모 토지공급 가능여부, 접근도로 현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발예정용지로 지정한다.
- 기존 연구에서 고속도로 개통 2년전부터 급격히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에 용지를 매입하도록 하여 개발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한다.
- 선정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역에 입지하고자 하는 산업유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, 이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.

3. 항만 배후지역의 산업단지 개발 방향의 전환

1) 필요성

- 최근의 물류환경의 변화로 무역항에 대해 과대 투자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항만의 이용이 감소하고 있다.
- 따라서, 물류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형태의 산업단지 개발로 개발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.



[그림 12] 고속도로IC
개발(예시도)

2) 물류여건변화

- 최근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무역항기본계획 수정계획(2006-2011)에서 충청남도의 무역항개발계획이 보류되거나 축소되었다.
-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항만개발과 국내의 항만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으로 항만과 배후산업단지가 조화를 이룬 개발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.
- 항만으로 들어온 원자재를 바로 주변에서 가공 또는 조립하여 완제품을 바로 수출할 수 있는 체계의 항만배후산업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.
- 다행히, 평택·당진항은 수도권 등의 수요로 인해 향후 대규모의 확충이 계획되어 있다. 이러한 확충과 더불어 배후산업단지의 기능과 형태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.

3) 추진방향

- 항만개발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발되는 항만주변으로 수입된 원자재를 바로 가공 및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재수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한다.
- 이러한 형태의 운영이 가능한 제품 및 산업을 선별하여 유치활동을 하고, 기술지원과 판로개척 등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춘다.
-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,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해 성공적 배후산업단지로 육성한다.

4.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관광도로 조성

1) 필요성

- 지역주민의 여가·문화활동 및 관광객유치를 위해 해안의 관광자원과 내륙의 역사·문화자원 및 지역의 다양한 모습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관광루트의 개발이 필요하다.

2) 입지여건

- 해안으로 산업단지 입지와 관련된 도로망이 확충되고 있으며, 내륙지역의 도청신도시,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전시와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. 또한, 수도권과 해안 및 내륙을 연결하는 서해산업선이 계획되어 있어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하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다.
-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연결되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관문지역으로서 다양한 관광자원이 산재하고 있다.

3) 추진방향

- 지역의 내재된 관광자원을 총체적으로 정비, 복원 및 확충하고, 이들간의 연결되는 교통망을 확충하여 관광도로로 조성한다.
- 주요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중심도로를 설정하고, 기타 관광자원은 루프형태로 연결하여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.
- 관광도로는 이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도로로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이미지와 당진군의 통일된 이미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조성지침을 작성한다.
- 산업물류교통과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, 지역의 곳곳을 편리하고,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선정 및 조성한다.

5. 자연 · 역사 ·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

1) 필요성

- 당진군은 수도권과 인접하여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, 충청권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, 도청신도시, 기업도시 등 인구유입과 고속도로 건설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, 주5일근무제 정착으로 관광형태가 체험형 · 체류형으로 변화하고 있다.
- 이러한 관광수요와 관광패턴의 변화에 맞는 관광자원개발이 필요하고, 관광자원간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.

2) 관광자원과 여건

- 당진군에서는 왜목일출, 서해대교, 난지도해수욕장, 함상공원 등 당진8경을 선정하여 가꾸고 있으며, 그외 함덕수리민속박물관,

도비도관광유람선 등 다양한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있고, 이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안내하고 있다.

- 또한, 농촌체험, 역사문화체험, 바다생태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.

3) 추진방향

- 당진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위치 및 특성을 고려하고, 차별화 및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한다.
- 이에 따라 정비사업과 함께 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한다.
- 이를 위해 관광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및 전문적인 관리팀을 구성하고,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관광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.

6. 기존 도시의 재생사업 추진

1) 필요성

- 도시의 성장은 산업단지 및 교통망 확충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. 기존 도시가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때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.
-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입지와 인구유입은 도시의 기반시설부족을 초래하고, 이를 확충하지 못 할 경우, 도시의 낙후로 인해 산업단지만 존재하는 황량한 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.
- 특히, 당진군은 기성시가지 외곽에 신시가지를 조성하였으며, 산업단지에 필요한 배후시가지 조성계획을 갖고 있어 기존 도심 또는 시가지의 정비사업이 필요하다.

2) 지역 여건

-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기 수립된 당진읍종합육성계획을 바탕으로 기존 도시의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국가에서는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성장이 기대되는 당진군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.
- 또한, 버스터미널 이전 및 주변 신시가지 조성 등과 분산된 산업단지 주변개발로 당진군의 중심도시인 당진읍의 도심쇠퇴가 우려되고 있다.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, 새롭게 추진되는 「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」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정비하는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가지활성화 방안 도입을 추진 할 수 있다.

3) 추진방향

- 기존의 도시정비사업들의 추진과정을 점검하여 추진이 부진하거나 추진 후에 효과가 적은 지역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한다.
- 이들지역과 향후 추진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한가를 검토하고, 사업추진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.
- 도촉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, 기존의 도시정비 모범사례 및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방안으로 실시한다.

7.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경관계획 수립

1) 필요성

- 당진군은 당진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 및 전송을 위해 송전탑이 즐비하게 조성되어 있고, 해안주변으로 산업단지 입지로 인해 해안경관이 훼손되었으며, 국가기간망을 이용한 통과교통이 많은 지역으로서 당진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.
- 그러나, 산업단지 유입, 인구유입 및 교통여건이 향상됨으로써 당진군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뿐만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도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경관계획이 필요하다.

2) 지역의 여건

- 3개의 고속도로가 개통 및 추진되고 있으며, 철도망, 관광산업도로 건설, 해안 및 역사·문화자원의 개발 및 정비 등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증가하였다.
- 산업단지는 현재까지 경관을 훼손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고,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이미지를 Eco-City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.
- 특히, 서해대교, 고속도로IC, 관광산업도로, 철도 등을 통해 도시의 경관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증가하고 경관자원의 중요도가 증대되고 있어 지역마케팅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.

3) 추진방향

-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 및 대상을 분석하고, 주요 경관포인트를 설정하여 경관특성별 경관계획을 차별화하여 수립한다.

- 고속도로IC는 물류유통 등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.
- 고속도로는 많은 교통량과 더불어 당진군을 조망할 수 있는 주요 지점중에 하나로, 휴게소 위치 등을 선정할 때, 양호한 경관 조망이 가능한 지역으로 하고, 휴게소에 조망을 위한 시설배치 등을 계획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특색있는 휴게소로 조성한다.
- 해안의 산업단지는 친환경적 요소를 확충하고,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, 산업단지에 의해 훼손된 해안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해안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개설 및 주변에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시설을 설치하여 경관자원을 활용한다.
- 기성시가지 및 신시가지의 가로 및 공원·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룬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.
- 농촌지역은 취락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에서 공급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담장, 지붕 등의 정비와 가로수 등 조망되는 시설을 특색있게 정비하도록 한다.

Ⅵ. 결론

1. 당진군의 잠재력 극대화

- 당진군이 갖추고 있는 수도권과의 접근성, 주변대도시와의 연결 교통망 확충 및 기존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속적인 산업유입, 항만개발 등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.
- 이와 동시에 당진군이 갖고 있는 역사·문화자원 및 자연환경자원 등과 더불어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부각시키도록 하여야 한다.

2. 계획적인 산업입지의 수용 및 관리

- 무분별한 산업입지의 수용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기성시가지의 공동화 등을 초래하여 도시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적으로 수용 및 관리가 필요하다.
- 현실과 장래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,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정을 통해 여건변화에 대응력을 길러야 한다.

3. 지역주민 및 주변시·군과 함께하는 성장정책

- 당진군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, 지역주민과 함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.
- 또한, 주변시·군과의 연대를 통한 공동성장정책을 마련하여 상호 윈-윈(WIN-WIN)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.

< 참 고 문 헌 >

- 대한민국정부(2005),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(2006~2020)
- 충청남도(2007),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(안) 의회보고자료
- 충청남도(2006),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, 충남발전연구원
- 충청남도(2006), 도청이전신도시 구역지정을 위한 기본구상(안) 중간보고서,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·케이지엔지니어링
- 충청남도(2004),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연계발전전략 수립, 충남발전연구원
- 충청남도(2006), “성장과 생명의 도시 이렇게 탄생한다”, 도청이전 추진 안내(<http://www.chungnam.net/content/city>), 도청이전추진본부
- 홍성군(2006), 충남도청이전과 연계한 홍성군 발전전략, 충남발전연구원
- 당진군(2007), 2025년 당진군기본계획(안)
- 당진군(2005), 당진읍 종합육성계획, 충남발전연구원
- 당진군(2003), 다이내믹 당진비전 21, 충남발전연구원
- 충남발전연구원(2006), “신도청 건설과 연계한 금산군 발전 전략”, 2006년도 현안과제 자료집 I, 충남발전연구원
- 충남발전협의회·충남발전연구원(2005),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발전방안
- 김동욱·강동진(1999), 대전~당진 및 구미~옥포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연구, 국토연구원
- 문동주외(1995), 고속도로 연결부의 유통단지 개발방안 연구, 국토개발연구원
- 유재영(1995), 고속도로 IC 주변부 개발 및 관리방안 연구, 국토개발연구원